



# 하상주보

2017년 9월 24일 (가해)

연중 제25주일

제1659호



성정 바오로 공동체 창설 31주년 불우이웃돕기 5K 걷기/뛰기 참가자들

[제1독서] ..... 이사 55,6-9

[제2독서] ..... 필리 1,20ㄷ-24,27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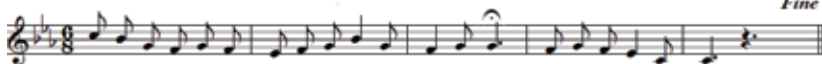
[화답송] ..... 시편 145(144),2-3.8-9.17-18  
(© 18 참조)

[복음 환호송]

◎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알렐루야.

○ 주님, 저희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기울이게 하소서. ◎



주님은당신을 부르는모든 이에게 가까이계시네.

[복음] ..... 마태 20,1-16

[성가 안내]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그분의 위대하심  
헤아릴 길 없으라.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깝게 계시네. ◎

- 입당성가: [452] 위험에 빠진 자에게
- 봉헌성가: [221] 받아주소서  
[220] 생활한 제물
- 성체성가: [501] 받으소서 우리 마음  
[500] 평화의 하느님
- 파견성가: [47] 형제여 손을 들어

## 복음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 묵상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 <sup>1</sup>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sup>2</sup>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sup>3</sup>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 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서 있었다.  
<sup>4</sup>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적당한 값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sup>5</sup>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sup>6</sup>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sup>7</sup>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sup>8</sup>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sup>9</sup> 그리하여 오후 다섯 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sup>10</sup>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sup>11</sup> 그것을 받아 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sup>12</sup>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피약벌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sup>13</sup>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sup>14</sup>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sup>15</sup>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sup>16</sup>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Jesus told his disciples this parable: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landowner who went out at dawn to hire laborers for his vineyard.

After agreeing with them for the usual daily wage, he sent them into his vineyard.

Going out about nine o'clock, the landowner saw others standing idle in the marketplace, and he said to them, ‘You too go into my vineyard, and I will give you what is just.’

So they went off. And he went out again around noon, and around three o'clock, and did likewise.

Going out about five o'clock, the landowner found others standing around, and said to them, ‘Why do you stand here idle all day?’

They answered, ‘Because no one has hired us.’ He said to them, ‘You too go into my vineyard.’ When it was evening the owner of the vineyard said to his foreman, ‘Summon the laborers and give them their pay, beginning with the last and ending with the first.’

When those who had started about five o'clock came, each received the usual daily wage.

So when the first came, they thought that they would receive more, but each of them also got the usual wage.

And on receiving it they grumbled against the landowner, saying, ‘These last ones worked only one hour, and you have made them equal to us, who bore the day’s burden and the heat.’

He said to one of them in reply, ‘My friend, I am not cheating you.

Did you not agree with me for the usual daily wage? Take what is yours and go.

What if I wish to give this last one the same as you? Or am I not free to do as I wish with my own money?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Thus,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예수님의 셈법은 우리의 세상 셈법과 사뭇 다릅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경제 정의의 기초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나중에 와서 적게 일한 일꾼과 먼저 와서 종일 일한 일꾼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데 이는 우리의 경제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비록 포도원 주인과 일꾼이 맺은 계약으로 본다면 같은 품삯을 주는 것이 정당하지만, 먼저 일하러 온 일꾼이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이 이런 우리의 익숙한 경제 정의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품삯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뜻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양으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차별로 느껴지는 품삯일 수 있지만, 하느님께는 같은 무게를 지닌 사랑의 표징입니다. 그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문제는 하느님의 방식이지 인간의 방식이 아닙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이 세상의 잣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고 전합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가 곧 자신의 삶이고 죽음 이 득이라는 역설을 말하는 것도 세상의 논리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복음의 위대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선점한 구원의 보증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무한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임을 잊지 맙시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 승리의 영광 에라스모 성인의 순교

베드로 대성전의 44개 제대 중 에라스모 성인의 유해는 십자가 형태 구도에서 우측 팔 부분 익랑(Transept)에 안장되었다. 에라스모 성인은 초기 기독교시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Campania)의 포르미에 지방 주교로 수많은 이들을 성공적으로 개종시켰으나 로마 황제의 박해로 303년 순교하였다. 성인은 1119년 베드로 대성전의 전례나 중요한 연관성 없이 처음으로 소개되어 신자들의 추종과 헌신으로 제대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성인의 제대를 장식하는 ‘에라스모 성인의 순교 (Martyrdom of St Erasmus, 1628~1629)’는 대성전의 수백 점의 예술품 중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의 제단화이다. 푸생이 30살에 예술의 성지인 로마에 도전해 공식적으로 주문받은 첫 작품으로, 기존 무명화가의 낡은 제단화는 이 그림으로 교체되었다. 관람객은 1739년 모자이크로 대체된 대성전의 복제품과 바티칸 박물관이 소장한 원본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에라스모 성인의 순교> 1628-1629, 유채화, 320 x 186 cm

박해 시기 산 사람의 창자를 꺼내는 혹독한 고문 장면을 푸생은 3미터가 넘는 기념비적 규모로 구성해 예술적 도전을 시도하였다. 거칠고 투박한 목제 장의자에 몸통만 걸쳐진 성인의 양 팔목은 머리 위의 무거운 돌에 묶여 있고 양 다리는 허공에 들려 있다. 벗겨진 붉은 색 제의는 신체 밑에 깔려 땅바닥에 피의 웅덩이처럼 펼쳐졌고, 그 위로 버려진 하얀색 주교 모자와 영대가 도드라진다. 흰 옷의 제사장은 왼쪽 상단의 헤라클레스 청동상을 가리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성인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교도의 우상숭배를 강요한다. 말을 탄 로마 군인의 감독 아래 네 명의 사형 집행인은 배의 밧줄을 감는 스펀에 성인의 창자를 감아 끌어 당기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작업을 냉혹하게 기계적으로 수행한다. 그들의 이국적 터번은 성인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한 중동 지역을 암시한다. 관람객은 하단의 참혹한 장면을 거슬러 그림 상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든 월계관과 종려나무 가지에서 순교자의 승리를 확인한다.

푸생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주제를 아름답게 창조하여 저항하기 힘든 매력적이고 복합적인 화면을 제시한다. 배경의 헤라클레스

조각상 고대 로마 건축물은 그가 추구한 르네상스의 부활과 고대 그리스의 향수를 반영하지만,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인물 묘사와 구도는 당대 독보적인 바로크 양식과 타협한 절충안이다. 그는 ‘순교’라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내러티브이자 숭고한 종교적 주제를 17세기 고전주의 대가의 화법인 웅장한 장엄양식으로 구현해 화면에 승화시켰다.

모진 고문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정신으로 죽음의 경지를 극복한 당당한 성인의 신체는 이상화된 고전주의적 인체 표현이다. 등장 인물들의 산만하고 분주한 동작과 대비되는, 극심한 고통에 무감한 듯 고요한 초월적 태도가 뿜어내는 아우라는 화면을 제압하며 위대한 영웅적 무게감을 과시한다. 관람객은 그림 표면에서 불의에 박해당하는 희생자가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로 변모해 새롭게 제시하는 불멸의 모범을 읽는다.

푸생은 미술 아카데미가 추구한 이상적 미술의 전형에 위대한 명제, 성인의 순교라는 역사적 사건을 대입해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조형적 질서를 구축해 명작을 탄생시켰다. 그가 추구한

화면의 조화와 균형은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고문으로 순교에 이르는 비참한 장면이 역설적으로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삶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증명한다.

고통 속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과 육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한 에라스모 성인은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하여 무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에 영속적 질서를 시각언어로 전달한다. 관람객은 그림에서 배교의 위협에 저항 없이 죽음을 수용하는 성인의 순교에서 신앙적 최고치의 실현이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 부활에 이르는 승리의 영광을 확인한다. ‘에라스모 성인은 폭풍 전후에 배의 돛대 꼭대기에 푸른 빛으로 나타나 선원들을 보호한다는 표시와 믿음이 전해져 내려온다.’ 두려움 없이 믿음을 전파한 성인의 순교와 통공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되는 희망과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기도한다.



<이순희 아네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졸업  
(르네상스 및 현대미술사 전공)

## 안나회·하상회 추석 잔치



안나회와 하상회는 지난 17일(일) 친교실 부엌 옆 테라스에서 월례회의를 대신해 추석 잔치 모임을 가졌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날씨도 청명하고 좋은 오늘, 옥외행사에 하상회와 안나회 회원님들이 참석하셔서 감사하다”며 “밖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더욱 젊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나회 황로사 자매의 사회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 바오로회, 베드로회, 로고스, 라파엘 회원들이 함께 한 친목 운동회



바오로회와 베드로회, 로고스, 라파엘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진 친목 운동회가 지난 17일(일) 하상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바오로회의 이성근 예레미아 회장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선·후배들, 친구들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사건이었다”며 특별히 협조해 준 각 단체 회장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바오로회는 이번 운동회에서 김밥을 판매해 생긴 수익금과 후원금을 원주 까리따스에 보낼 계획이다.

### • 바오로회 사랑의 묵주 기도 스테이션 •

#### 기도 지향

†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따뜻한 형제애와 자매애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가족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 제4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 봉사자 교육



제4기 성 마리아 어머니학교 봉사자 교육이 지난 17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어머니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하느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고 우리의 봉사과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도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제4기 어머니학교가 준비 교육 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전례 후 “열정적인 봉사와 봉사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를 있었으며 준비 계획서 점검 및 토의가 이어졌다.

제4기 어머니 학교는 9월 24일(일)과 10월 1일(일)에 친교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행사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 페어팩스 2-1반, 카카폰 공원서 기도회 모임



페어팩스 2구역 1반 신자들이 지난 주말 2박 3일 일정으로 웨스트버지니아 소재 카카폰 주립공원에서 기도회 모임을 갖고 신앙과 친교를 다졌다. 총 7가정 17명이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 신자들은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의무와 용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다음 주 성경 퀴즈대회를 위한 성경공부도 함께 했다. 또한 가을을 맞아 공원 내 산책, 등산 및 골프 등을 즐기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 레지오 마리아 2017년 야외행사 및 홍보의 날



본당의 대표적인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단장 김국 스테파노)의 2017년 야외행사가 9월 17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나눔터에서 있었다. 맑게 갠 초가을 하늘 아래 총 477명 (행동 단원 253명, 협조 단원 224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묵주 기도를 시작으로, 영적 지도 신부인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의 말씀에 이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 점심시간 후에는 까페나(정우진 미카엘 단장), 장기 자랑, 마침 기도(이순임 헬레나 푸리아 단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경원 마르띠노 형제가 사회를 보며 진행한 장기 자랑에는 총 9개 팀에서 출전, 참석한 단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였다. 행사 후에는 모든 단원들이 정돈과 청소에 참여하여 어느 해보다 일찍 끝마칠 수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한 즐거운 시간이었으며 행복해했다.

한편 성당 안에서는 8시 및 10시 미사 후, 청년팀들이 주관하는 홍보의 날 행사도 함께 펼쳐져 레지오 마리아를 본당 신자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 방명준 라우렌시오 보좌신부 부임미사

성 정 바오로 성당의 제8대 보좌신부로 부임한 방명준 라우렌시오 신부는 지난 9월 17일(일) 첫 부임미사를 드리고 신자들의 환영인사를 받았다. 방명준 신부는 강론을 통해 사제의 길을 걷게 된 성소 이야기를 전하며 사제 서품 성구처럼



“끝까지 사랑하신”(요한 13,1)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 싶다고 전했다. 또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낸다”며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늘 섬김과 봉사의 자세로 낮고 구석진 곳을 향해 살고 싶다”고 말했다.

방 신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신학교 입학 당시를 떠올리며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지도해 준 성소국장 신부님이 바로 여기 계신 백인현 주임 신부님”이라며 둘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제 서품 성구

“끝까지 사랑하신” (요한 13,1)  
예수님처럼...



지거려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



**Bishop Burbidge** invites all teens of the Diocese to join him at **RALLY 2017!**

**WHEN**

Sunday, October 22, 2017  
12:00pm-8:00pm

**WHERE**

Bishop O'Connell High School, Arlington, VA

**COST**

\$25.00 per participant - youth and adults - which includes all of the great entertainments, dinner, and snacks

##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불우이웃 돕기 5K 뛴기/걷기 대회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불우이웃 돕기 5K 뛴기/걷기 대회가 9월 16일(토)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Greenbriar Park에서 열렸다. 30주년이었던 지난 해 기념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올해 대회에는 총 109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형제 자매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식사와 친교를 나눠 행복하다”며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행사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복지부를 비롯하여 각 신심 및 활동 단체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해줬으며 성모회에서는 순두부 백반을 준비해 행사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하였다. 복지부는 등록비와 도네이션을 포함한 \$3,350을 불우이웃 돕기에 쓸 예정이며 3회 대회는 내년 9월로 계획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

10대 & 20대

- 1등 남승현 David
- 2등 남유승 Jacob
- 3등 Josh Sibio

30대 & 40대

- 1등 남재원 요한
- 2등 김돈현 미카엘
- 3등 임수용 프란치스코

50대 & 60대

- 1등 최옥현 야고보
- 2등 노갑병 바울
- 3등 권혁춘 요셉

여자부

- 1등 변원옥 세실리아
- 2등 허지혜 아녜스
- 3등 노덕기 바울라



1 한기위 - 조상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 미사 일시 : 10월 4일(수) 오후 8시
- 위령미사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9월 24일(일) 11:30 (하상관 B-4,5)

3 요한회 월례회의(50대 교우)

- 일시 : 9월 24일(일) 11:30 (B-3)

4 복사단 모임

- 일시 : 9월 24일(일) 12:40 (B-1,2)

5 KofC 모임

- 일시 : 9월 24일(일) 오전 11:30 (A-1,2)

6 꾸르실리스마 영성 피정

-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1:30 - 오후 6시
- 강사 : 김종성 베드로 신부님
- 장소 : 워싱턴 성당 (소성당)
- 문의 : 광노덕 (703)608-9664

7 주일학교 1학기 화재 대피 훈련

- 일시 : 10월 1일(일) 오전 11:10 - 11:30
- 장소 : 하상관과 하상관 주변 구역(하상관 지하 및 체육관 포함)
-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상관 출입이 금지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8 구역임원 교육

- 일시 : 10월 1일(일) 오전 11:30 (B-3,4)

9 청소년 사도 임원회의

- 일시 : 10월 1일(일) 오후 1시 (A-3,4)

10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 10월 1일(일) 오후 1시 (B-1)

11 10시 성가대 단원 모집

- 10시 미사 성가대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성가에 관심 있는 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등록 : 9월 17일부터 10시 미사 후 성당 로비
- 문의 : 김윤식 블라시오 (214)592-6369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9월 24일(일)	연중 제25주일	8시미사 독서/해설자 모임(오전 9시), KofC 모임(오전 11:30, B-1,2), 꾸리아 월례회의(오전 11:30, 하상관 B-4,5), 요한회 월례회의(오전 11:30, B-3), 복사단 모임(오후 12:40, B-1,2), 성경 퀴즈대회(오후 1시, 친교실), 우드브리지 미사 없음
25일(월)	연중 제25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6일(화)	연중 제25주간	하상 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성서통독반(오후 8시, B-4), 성경기도회(오후 8시)
27일(수)	성 빈첸시오 드 폴 사제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바로로 소공동체 모임(오후 8시), 성서통독반(오후 7:30, A-1)
28일(목)	연중 제25주간	아침미사(오전 6시, 성당)
29일(금)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하상 성인학교(오전 9시, 하상관), 저녁미사(오후 7:30, 성당)
30일(토)	성 예로니모 사제 학자 기념일	아침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10월 1일(일)	연중 제26주일	구역봉사자교육(오전 11:30, B-1,2), 주일학교 소방훈련(오전 11:10), 성모회(오후 1시, B-1), 청소년사목회(오후 1시, B-3,4), 어머니학교 봉사자 교육(12:00, A-1,2), CLC동중부 모임(오후 1:30, 친교실), M.E. 나눔터 사용(오전 11:00) 성서통독반(오전 11:50)

\* 2차 헌금 \*

오늘은 헤리케인 Irma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 ME 주말 부부 여행 참석자 환영식

- 지난 미 동북부 ME 주말 부부 여행에 10쌍의 부부가 참석하셨습니다. 환영식에 선배 ME 부부들 모두 참석하시어 새 ME 부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월 1일(일), 10시 미사 후 (나눔터)

13 세계 제25차 기도와 금식 주간(10월 1일 - 10월 9일)

- 개인과 세계 모든 국가들의 회개, 결혼과 가정생활의 성화, 생명존중 문화를 일깨우고자 주님의 자비를 청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 10월 9일(월) 마지막 날 : 기도의 날 행사 진행 / Joseph Perry 주교님(사카고대교구) 미사 및 강론, 연설
- 장소 : National Shrine (D.C) 오전 9시 - 오후 4:30
- 문의 : (888) 478-PRAY, (703)707-0799 / www.iwopf.org

14 알링턴 교구 청소년 신앙 대회

- 일시 : 10월 22일(일) 오후 12시 - 8시
- 대상 : CYO 9학년 - 12학년
- 접수 기간 : 9월 24일 - 10월 15일
- 문의 : CYO 교사 또는 이희준 아오스딩 (703) 627-0799

15 성당 묘지 구입(20% 할인) 안내(연령회)

- 일시 : 10월 7일(토) 오전 11시
- 장소 : Fairfax Memorial Park
- 문의 : 홍의훈 요셉 (703)966-8206

\* 가족 모두를 위한 순례 체험 \*

알링턴 교구 마이클 버짓지 주교님께서 가족 모두를 위한 순례 체험에 신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 14일(토) 오전 9시-오후 3시
- 장소 : 성모무염시대 성당 (D.C)
- 본당에서는 신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버스(점심 포함)를 제공합니다.(선착순 50명)
- 등록 : 10월 1일(일)까지,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김 마리나 (703)615-9910, 사무실 (703)968-3010

\* 공동체 창설 31주년 기념 \*  
\* 성경 · 교리 퀴즈 대회 \*

- 일시 : 9월 24일(일) 오후 1시 (친교실)
- 대상 : 구역별 / 개인
- 접수 기간 : 9월 17일(일)까지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강세원 구역부 부회장 (703)489-3938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 (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연중 제25주간 : 신명 1- 3장/ 마르코 12장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9월 28일 (목) 오후 5:00-6:00
- 9월 29일 (금) 오후 8:00-9:00
- 10월 1일 (일) 오전 6:00-7:00

- 가톨릭 종합뉴스
- 가톨릭 리더를 만나다 : 우리 시대 가톨릭 리더들의 모습은 어떻게. 스포츠 의학 전문병원 조성연 요셉 원장 이야기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9월 17일 (연중 제24주일)

주일헌금	\$ 8,403.10
교무금	\$ 12,260.00
교무금(크레딧카드)	\$ 2,96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23,623.1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명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성원(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희(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중(요셉), 송영호(요한), 김용구(베네딕),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김동분(아기다), 오인균(바로로), 이숙(소피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박광원(아나시오), 안순겸(모니카), 이수선, 김화순(세실리아)

♥ 군복무자

강로련(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도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자(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조중연(모세)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 정승균 씨 자 : 정정오(비오)
- ◆ 이정오 씨 녀 : 이보배(아델라)
- 일시 : 2017년 10월 7일(토) 오후 4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로로 성당
-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장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b>RE/MAX Gateway 부동산</b>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b>정재민 치과</b>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b>Pohanka Acura</b>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b>허진 변호사</b> attorneyhuh24.com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b>엘리사벳 백화점</b>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칼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 (알베르토) 703-508-7743
<b>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b>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b>영스 헬스케어</b>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b>김돈현 가정의학과 전문의</b>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b>소아전문치과</b>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b>문스 자동차 정비</b>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b>안아픈 세상(양방/한방)</b>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b>시티 종합 보험</b>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b>Lee's Heating &amp; Air</b>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b>베스트 사인</b>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b>보험/은퇴연금</b>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b>시원 냉난방</b>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 (월리암) 703-362-7770	<b>민기호 내과</b> John Min M.D. 703-462-8711	<b>Euromotor Cars</b> Mercedes-Benz 유티노 한 703-855-8710	<b>McLean Psychiatric Services</b>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b>재노 오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b>한미 소독</b>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b>와니 건축</b>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b>척추사랑</b>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린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b>메디케어</b> 흥석철 마태오 703-969-8956 박인경 소피아 703-969-8954	<b>스킨케어 소유</b>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 (요셉파나) 703-992-7930
<b>하얀나무치과</b>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b>그레이스 홈 케어</b>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b>영스 히팅</b> 에어컨, 히팅 703-728-3160	<b>CORE 물리치료</b>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b>골프 레슨</b> 성인레슨 및 윌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퍼터 환영 레지나 678-800-3451
<b>정수정 부동산</b>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b>한중희 토마스</b> 공인 회계사	<b>영스 노인 복지센터</b>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b>민 자동차 정비</b> 703-869-9691	<b>에스터'S 키친</b>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b>시몽사진</b>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b>SEM Education</b>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b>SBA 대출/상업대출</b> Bank of Hope Jessie kim 571-488-5003	<b>Kim's Auto Service</b> 자동차 정비 703-425-4600	<b>이용희 변호사</b> 상법, 교통사고, 상속/유언, 가정법, 재판 Gregory Y. Lee(그레고리오) 703-303-2211
<b>윤 조셉 변호사</b>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b>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b>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b>공인회계사(CPA)</b> 개인세금, 비즈니스 회계, 컨설팅 앤디차 (대건 안드레아) 703-678-8848	<b>Kwon's Champion School</b> 종합무술 (Before / After / Evening) 703-785-3845	<b>피아노 레슨</b> 아동 - 성인반 원하는 장르 가능 703-505-8559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사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톨릭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 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방명준 (라우렌시오) | 사도회장 이호영 (요셉)